

40년 쌓아온 ‘기술 노하우’로 친환경 선도 (주)아이피씨

(주)아이피씨(대표 신정열·IPC)는 ‘우리만의 고객 사랑으로 고객 감동 그 이상을 구현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1982년 그라비아 잉크 생산을 시작으로 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는 그라비아 잉크, 플렉소 잉크, 식품 포장용 접착제를 비롯해 잉크 바인더용 수지, 산업제용 코팅제 및 각종 기능성 코팅제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와 친환경 제품 설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친환경 잉크, 친환경 무용제 접착

제 개발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피씨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통한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의 소중한 믿음을 바탕으로 선두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최고의 품질로 업계 선두를 꿈꾸는 신정열 아이피씨 대표를 만나 회사가 가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우연히 시작한 잉크사업, 꾸준한 기술 투자로 이름 알려

신정열 대표는 우연한 계기로 잉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잘 아는 업계 지인으로부터 ‘잉크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시작한 일이지만, 그 뒤로는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1982년 8월 명성산업으로 출발한 회사는 당시 아이스크림 포장재인 종이 증착지에 사용되는 잉크를



▲ 신정열 아이피씨 대표이사

생산하고 있었으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신 대표는 “처음에는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이것저것 검토해본 뒤 인수를 결정하게 됐다. 1984년 7월 회사를 인수한 후 공장에 가보니 창고에 잉크가 가득 차 있었다. 남은 잉크는 팔지도 못해 손해가 막심했다”면서 “초기에는 납품하면 계속 반품되는 경우가 많아 공장 한쪽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먹고 자고 고생하면서 3~4년을 버텼다. 그 뒤부터는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의 시화공단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아이피씨는 보다 나은 품질과 생산을 위해 더

욱 노력했고, 1991년 10월 시화공단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특히 기술연구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갔다. 신 대표는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국내 잉크의 품질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1996년 10월 기술연구소 설립과 제2공장을 준공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잉크용 우레탄 수지 및 연포장 라미네이팅 접착제 개발에 성공해 가격 경쟁력 및 잉크에 보다 최적화된 바인터를 적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1월에는 상호명을 지금의 ‘아이피씨’로 변경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간



▲ 아이피씨 회사 전경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 공장 내부 전경

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3년 6월 라미네이팅 접착제의 FDA인증(FDA 21 CFR 177.1390)을 획득하였고, 생산성 우수기업 선정(2008년 9월), ISO9001:2008(2009년 10월) 획득, 2011년에는 300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며 점차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꾸준한 기술 투자로 2016년 3월에는 알코올 그라비아 잉크를, 같은 해 4월에는 2액 무용제 접착제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신제품을 양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수성 플렉소 잉크, 아이피씨 기술의 '결정체'

근래에는 아이피씨의 기술력이 정점에 달했다. 2022년 2월 국내 최초 필름인쇄용 100% 수성

플렉소 잉크(제품명: AQUA FLEX) 개발에 성공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가 시상하는 한용교포장인상 연구 개발 부문을 수상했다.

수성 플렉소 잉크의 개발은 아이피씨가 일궈낸 지난 40년 노하우와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점 환경에 대한 규제와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피씨는 다년간 노력 끝에 유기 용매 없이 100% 물로 구성된 필름용 친환경 플렉소 잉크를 개발해 로하스(LOHAS ·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인증과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오로지 물만 사용하여 유해 잔류 용제가 없고

화재 위험성도 없는 비위험물인 데다가 채용해
력이 우수해 인채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수지
판 세척에도 용이하다. 또한 고농도, 저점도로
설계되어 고선수 인쇄가 가능하고, 광택이 우
수해 무용제 가공적성과 T-Die 후가공 접착
강도도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제 수성 잉크로의 '변화의 바람'은 거스를
수 없는 단계이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
다. 상용화가 가능하긴 하나 국내에는 수성잉
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 기반 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관련한 기술교육도
함께 이뤄지지 않아 선뜻 이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신 대표는 “우선 수성 플렉소 잉크는 기존 양
산품인 유성 타입의 잉크와 용매 차이로 인해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작업장 분리, 신규 전용설비 도입, 그에 따른
작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 대량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
렀지만, 제품에 대한 작업자의 인식 차이를 극
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대표는 “더군다나 고객 입장에서 유성
타입의 잉크와 달리 수성 타입 잉크는 당사 인
지도가 부족하여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지속
적인 연구 투자로 개선 활동 및 라인 테스트,
대외 수상 경력 등으로 계속 인지도를 넓혀가
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성 플렉소 잉크는 스넬, 빙과류, 면류 등
OPP필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PET,
나일론 특히 T-Die나 살균 적용에는 외산 잉



▲ 아이피씨 기술연구소 내부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크를 포함하여 적용 제품에서 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Lab 테스트 및 라인 검증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향후 OPP 이외의 소재 및 고기능성(레토르트 살균)까지 사용이 가능한 잉크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용제 2액 접착제는 시중에서 AL 사양이나 고물성의 레토르트 사양에 적합한 제품이 현재 없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물성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에는 신규 개발제품으로 분리형 무용제 2액 접착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특허 출원을 하고, 라인 검증을 앞두고 있다.

미래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다수 인증과 특허로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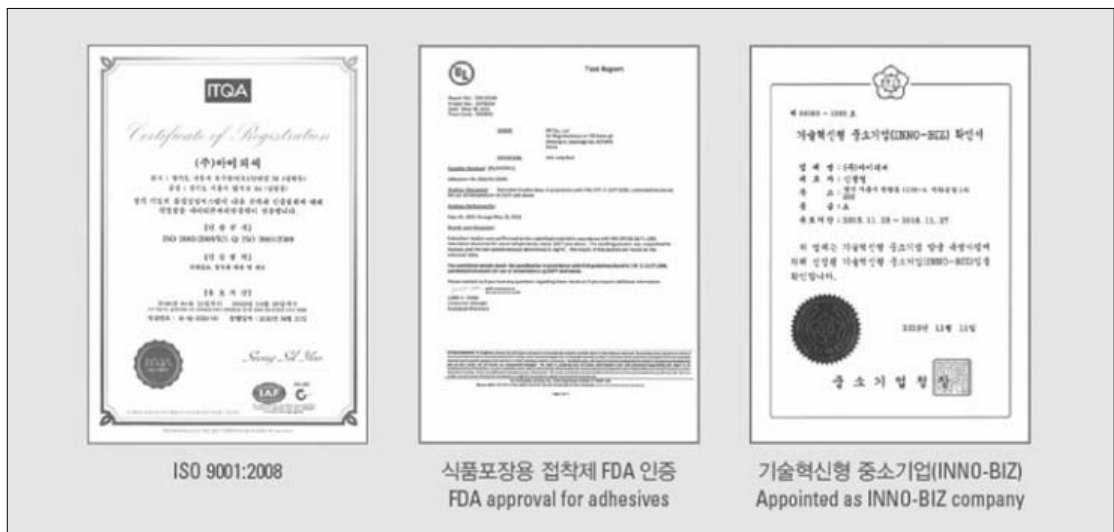
신정열 대표는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필수' 라면서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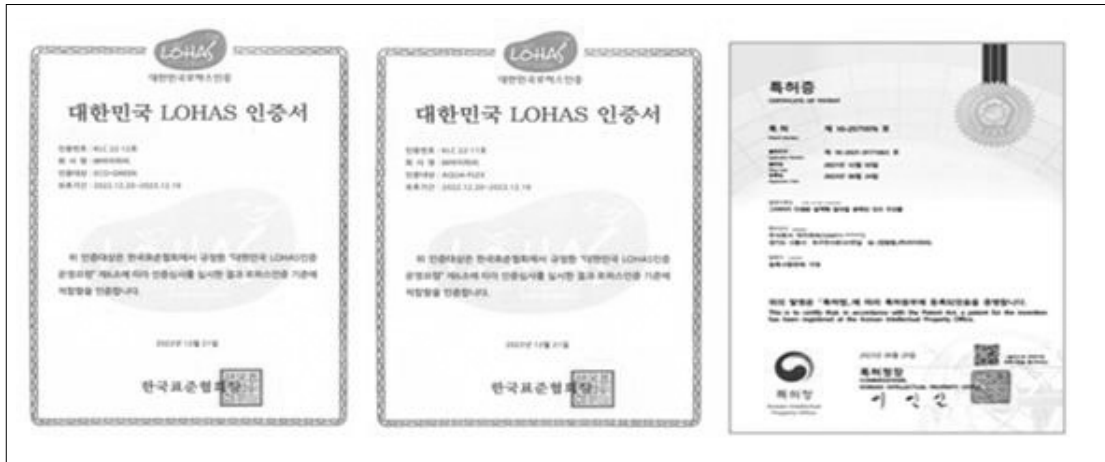
신 대표는 “잉크와 접착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구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면서 “잉크로는 탄소배출량 최소화 또는 ZERO화할 수 있는 알코올 잉크의 확대 적용과 수성잉크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과 적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접착제는 AL 사양, 레토르트 살균 등 무용제 접착제의 고기능성 제품의 개발 완료를 앞당겨 환경 보호 활동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아이피씨는 다수의 품질 인증서 획득과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등 향후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ISO 14001 환경 경영인증과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인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증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신 대표는 “알코올 그라비아 잉크인 ECO-GREEN의 특허등록(등록번호: 제10-2571976



▲ 사진 왼쪽부터 ISO 9001:2008, FDA 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사진 왼쪽부터 ECO-GREEN LOHAS인증, AQUA-FLEX LOHAS인증, ECO-GREEN 특허등록

호)을 완료하여 고객사의 녹색기술 인증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인 AQUA-FLEX 또한 특허 출원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ECO-GREEN과 AQUA-FLEX 2종 제품에 대한 로하스 인증 등 친환경 잉크 제조 리딩업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역시 고객사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플렉소 인쇄 특성상 고선수·고농도 설계를 위한 고성능 분산기, 수성 전용의 별도 설비 구축 등 제조 설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분산성, 고농도 발색성 등 우수한 품질의 수성 플렉소 잉크를 양산하고 있다.

신 대표는 “GPC, GC, 수분분석, 입도분석, 단층촬영 등 각종 분석 장비가 잘 갖춰져 있다. 인

쇄 및 가공 컴플레인에 대한 고객 대응은 이러한 분석 장비를 이용해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화된 수치 데이터로 접근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만족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위한 상생 + 개발제품 정착에 최선”

아무리 기술 개발에 힘을 들여도 국내외 경제 등 외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좀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신정열 대표는 업계가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업계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정말 형편없이 낮을 때가 있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협회 등 소통의 자리에서 이야기해 봐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다행히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있지만, 환율과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 신정열 대표이사가 아이피씨 공장일대 현장을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12월 말까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갈 일만 남았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가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시장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업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안팎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신 대표는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 믿고 있다. 아이피씨는 앞으로 수성 플렉소 잉크뿐만 아니라 알코올 잉크를 업계에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수년간 개발해 테스트를 완료한 수성 그라비아 잉크도 상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재 수성 플렉소 잉크의 경우 거래처에서도 조금씩 시설을 바뀌어나가고 있다. 기

존 사용하던 것과 비교하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단 잉크의 농도가 좋아서 품질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타 회사보다 제조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몇몇

대기업에서 하반기 중 우

리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대표는 “수성 그라비아도 제품을 완비하고, 여러 업체들을 통해 테스트까지 마쳐 상용화를 앞뒀다”면서 “알코올 잉크 역시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요구하는 품질도 상당히 높다. 특히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알코올 잉크 제품의 질이 균일하게 나오기 힘들다. 이를 커버할 수 있고 하이레토르트까지 가능한 우리 제품으로 품질을 안정화하고, 업계에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제품을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식품 포장용 잉크와 접착제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용 제품 영역으로까지 다변화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시장을 리딩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